

주제 2

〈로동신문〉에 나타난 대남보도 논조 분석

- 2008년 이후를 중심으로

김영주(경남대 신문방송정치외교학부 교수)

〈로동신문〉에 나타난 대남보도 논조 분석

- 2008년 이후를 중심으로

김영주(경남대 신문방송정치외교학부 교수)

이 논문은 남북관계의 진전·현안에 따라 남한에 대한 북한언론의 논조가 변할 것이라는 가정아래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2008년 1월부터 임기 중반을 넘긴 2010년 1월까지 5단계로 시기(①차기 정부 준비기<2008. 1. 1~1. 30> ②이명박 대통령 취임초기<2008. 2. 25~3. 25> ③촛불집회기<2008. 7. 13~8. 11> ④북한 미사일 발사·핵실험기<2009. 4. 29~5. 28> ⑤이명박 정부 중반기<2010. 1. 1~1. 30>)를 나누어 로동신문에 나타난 남한 관련기사(이른바 남한정세자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연구문제는 4가지 즉, ①로동신문의 남한정세자료는 누가 취재하고 어떻게 편집되는가? ②로동신문의 남한정세자료는 시기별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③로동신문의 남한정세자료에 등장하는 인물과 단체는 무엇이며 시기별로 달라지는가? ④로동신문의 남한정세자료에 등장하는 인물과 단체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이며, 연구방법은 내용분석 방법과 텍스트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로동신문은 ‘예리하고 전투적이며 강력한 사상적 무기’의 중심이며, 조선로동당의 노선·정책을 해설·논평하는 주의주장적 저널리즘의 핵심이기 때문에, 김정일이 주창한 이른바 ‘주체적 출판보도사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남한에 대한 로동신문의 논조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로동신문, 대남보도 논조, 주체언론, 남한정세자료, 약평어,

1. 서론

2010년 10월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 62.3%가 이전 정부의 대북 정책 수용을 원하고, 55.2%가 바람직한 대북정책은 ‘남북대화’이며, 국민의 63.8%가

현재의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원혜영(민주당) 의원이 10·4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기념해 우리리서치에 의뢰, 지난 달 30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 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북통일정책 국민여론조사>에서 도출되었다. 한편, 대북 통일정책을 잘한 정부를 묻는 질문(이명박 정부는 설문 문항에서 제외)에는 김대중 정부(34.5%), 박정희 정부(17.5%), 노무현 정부(15.7%), 전두환 정부(2.8%), 이승만 정부(2.4%), 김영삼 정부(2.2%), 노태우 정부(1.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같은 민족이므로 필요하다는 응답(47.9%)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평화적 분위기만 조성돼도 충분(26.1%), 경제적 혜택 때문에 통일 필요(15.5%), 엄청난 비용 때문에 통일 불필요(10.5%)” 등으로 응답하고 있어, 통일에 공감하는 국민이 6할 이상이 되었다.

야당의원들과 진보진영에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근간한 대결적 대북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6·15, 10·4 선언 이행과 남북관계는 심각한 난관에 봉착했으며,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교전을 비롯하여 금강산에서의 남측 관광객 피살, 개성공단에서의 근로자 장기간 억류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지난 2년 동안 남북관계를 경색시킨 것은 오히려 북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즉, 북한이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사건을 시작으로 2009년 4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5월 2차 핵실험, 11월 대청해전에 이어 2010년 3월에는 천안함 사태를 도발하면서 현재의 경색국면을 조장했다는 논리다. 누구의 논리가 맞던 간에 작금의 남북관계가 대결·갈등국면을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 할 사실이다.

북한은 언론활동을 ‘사회정치활동’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계급성’(당성)을 띠고 전제하였다. 따라서, 언론매체는 ‘특정한 계급이나 당, 사회적 집단의 사상과 이익을 대변하는 사상적 무기로 복무한다’고 인식하면서, 근로인민에게 복무하는 당적 언론과 착취계급에게 복무하는 반동적 언론으로 양분된다고 보았다. 북한의 언론학자들은 북한언론을 전자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언론의 본질은 원론적 차원에선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시대적 상황에 따라 조금의 변화를 가진다. ‘당의 예리하고 전투적인 사상적 무기’나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중심고리’ ‘당정책의 옹호자·실천자’라는 개념들은 1960년대에 형성되었으며 1970년대

에 ‘선진사상의 옹호자·전파자’ ‘사회여론의 대변자·조직자’, 1980년대에 ‘사회개조·인간개조하는 전위기수’, 1990년대 이후는 ‘대외선전·대적투쟁의 무기’ ‘김정일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하는 혁명적 무기’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처럼 북한언론은 당의 정책과 노선을 충실히 해설 선전하는 사상적 무기로서의 역할을 이행해 왔다.

이 논문의 목적은 남북관계의 진전·현안에 따라 북한언론의 대남논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가정아래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2008월 1월부터 임기 중반을 넘긴 2010년 1월까지 5단계 시기(①차기 정부 준비기<2008. 1. 1~1. 30> ②이명박 대통령 취임초기<2008. 2. 25~3. 25> ③촛불집회기<2008. 7. 13~8. 11> ④북한 미사일 발사·핵실험기<2009. 4. 29~5. 28> ⑤이명박 정부 중반기<2010. 1. 1~1. 30>)로 나누어 로동신문에 나타난 남한 관련기사(이른바 남한정세자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해 보는데 있다.

2. 북한언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주체언론이론에 따른 남한정세자료

‘주체언론’으로 요약되는 북한언론의 성격은 ‘김정일의 5·7문헌’(<우리 당의 출판보도물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이다>, 『김정일선집4』, 1974. 5. 7)에서 처음으로 제기한 ‘주체적 출판보도사상’의 핵심내용이다. 북한언론은 ‘새형의 주체적 출판보도물’과 ‘김일성주의 혁명적 출판보도물’을 특성으로 한다. 전자는 철저하게 주체사상으로 관통되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생명으로 삼고 있음을 뜻하며, 후자는 김일성주의를 지도적 지침으로 삼아 김일성주의의 승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을 뜻한다(김영주, 1998, 445쪽). 북한은 1974년부터 2010년까지 일관성 있게 ‘주체언론’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일은 5·7문헌에서 북한언론의 임무·사명을 3가지 즉, ①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만들고 ②사회를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물질적 요소를 점령하는데 기여하며 ③남한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 적극 이바지한다는 것으로 정리하였다(김영주·이범수, 1998, 55~58쪽). 첫째, 정치·사상적 차원에서 사상교양자적 기능을 통해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나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둘째, 경제·문화적 차원에서 조직동원자적

기능을 통해 ‘공산주의의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거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데 기여하며 셋째, 정세적 차원에서 대적 투쟁·대외선전의 무기로서의 기능을 통해 ‘조국통일과 남한혁명 및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언론의 임무·사명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상술한 ‘김일성주의자’는 주체사상을 유일한 세계관으로 삼으며, 수령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수령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신조화하며 당의 방침을 집행할 때 ‘무조건성의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을 말한다.

북한 언론학자들은 북한신문이 ①정치사상 교양자료 ②경제교양자료 ③문화교양자료 ④정세교양자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정치사상 교양자료’는 가장 중요하며, ①당과 수령의 혁명활동 보도자료(김일성 부자의 고전적 노작과 당문헌관련 보도자료, 당·국가 사업지도관련 보도자료, 대외활동 보도자료) ②당원·근로자대상 사상교양자료(김일성의 혁명사상·당노선·혁명전통에 대한 사상교양자료) ③당 건설·활동 보도자료 ④일반정치 보도자료 및 국내외 정치행사 보도자료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두 번째는 ‘경제교양자료’로서 ①당의 경제정책 해설보도자료 ②경제건설투쟁 성과와 경험의 일반화 보도자료 ③과학기술 선전자료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세 번째는 ‘문화교양자료’로서 ①사회주의 문화건설노선·방침 해설·선전자료 ②문화건설분야의 성과·경험 선전자료 ③근로자들의 일반상식·문학예술적 소양제고자료 등 3가지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정세교양자료’는 ①남한정세자료 ②국제정세자료 등 2가지로 구성된다. ‘남한정세자료’는 ①남한의 김일성부자 및 조선노동당에 대한 흠모자료 ②주체사상 학습자료 ③통일투쟁자료 ④반미·민주화·생존권을 위한 투쟁자료 ⑤미일제국주의자들의 만행폭로자료 ⑥해외동포들의 반미·반한 투쟁자료 ⑦민주화 운동자료 등을 취급하고, ‘국제정세자료’는 ①세계인민들의 김일성부자에 대한 흠모자료 ②투쟁성과 소개자료 ③국제공산주의운동 투쟁자료 ④신흥국가·발전도상국가의 새 생활 투쟁자료 ⑤자본주의국가의 노동운동자료 ⑥제국주의국가의 음모·죄행 폭로자료 등을 취급한다(김영주·이범수, 1999, 145~170쪽).

한편, 로동신문의 대남보도 논조를 깊이있게 분석하기 위해선 상술한 내용 가운데 남한정세자료에 대한 북한 언론학자들의 인식을 검토해야 한다. 북한 언론학자들은 ‘남한정세자료를 잘 취급하는 것은 북한신문의 기본임무로부터 언제나 중요한 임무로 나선다’고 전제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혁명에 대한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고 세계여

론을 북한쪽으로 유리하게 전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남한정세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북한당국의 인식은 『신문학개론』(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89)에 비교적 상세히 나와 있다. 우선 남한정세자료의 취급은 남한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북한신문들 앞에 나서는 기본임무로부터 제기되는 혁명과업으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북한신문은 남한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적극 해설, 선전하며 남한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각성시키기 위한 자료들을 잘 취급하는 것과 함께 남한정세자료들을 제때에 반영하는 것을 중요과업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북한신문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른바 ①위대한 수령(김정일 포함)과 조선로동당에 대한 남한인민들의 흠모자료 ②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적극 따라 배우고 그 기치 아래 남한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해 적극 싸워나가야 하는 투쟁자료들이라고 천명하였다(김영주·이범수, 1999, 164쪽).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남한인민들의 반미자주화·반과썌민주화·생존권리 투쟁에 대한 자료들이다. 북한 언론학자들은 “정세발전에서 주동적 역할을 하는 것은 자주성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인민대중이다. 따라서 혁명역량강화와 그들의 투쟁소식을 시의성있게 기동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투쟁을 고무하며 북한인민들을 교양하는데도 큰 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남한에서 미일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감행하고 있는 범죄적 책동과 야수적 만행을 폭로하는 자료들은 세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다. 남한정세보도에서 기본은 미제침략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새로운 전쟁도발책동에 대한 폭로들이다. 그 까닭은 미제가 남한에 군림하는 실제적 통치자이며 남한혁명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미제와 함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략 책동자료들이다. 따라서 북한신문은 미제를 등에 업고 남한에 재침략 마수를 뻗치고 있는 일본군국주의자의 범죄적 음모책동, 침략·약탈 행위를 제때에 폭로함으로써 북한인민들을 각성시키는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이중주구인 남한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반인민적 죄행과 음모책동을 철저하게 폭로하는 자료들이다. 이것은 남한괴뢰정권이 미제의 남한강점과 식민지정착을 가리는 매국·예속정권이며, 지주·매관 자본가·반동관료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반인민정권이라고 북한인민들에게 폭로한

다. 이와 함께 외세를 몰아내고 남한의 괴뢰통치배들을 소멸시켜야만 비로소 남한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위업도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각성케 한다. 북한신문은 시의 적절하게 사실적 차원의 폭로자료(보도)와 원리적 차원의 폭로자료(논평)를 적절히 배합해야 한다.

끝으로 남한정세자료에는 해외동포들의 반미·반한 투쟁자료 및 반파쇼 민주화 운동자료 등도 함께 취급한다. 그것은 해외동포들의 투쟁이 남한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한 전체 인민들의 투쟁과 밀접하게 연동되기 때문이다.

2) 로동신문의 역할과 면별 구성

북한신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문은 1945년 11월 1일 발간된 『로동신문』이다. 이 신문은 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당보)로서, 6면 체제로 150만부 정도가 발행된다. 조직체계는 2010년 현재 최고책임자인 책임주필(최근까지 조선기자동맹 위원장을 자동 겸직했으나 지금은 분리) 밑에 10명 전후의 부주필(2명의 제1부주필 가운데 편집담당 부주필은 편집국장 겸임)과 10개 부서(당력사교양부, 당생활부, 사회주의교양부, 공업부, 농업부, 과학문화부, 조국통일부, 국제부, 사진보도부, 특파기자실)로 구성되어 있다. 편집국장, 부국장, 10개 부서장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신문제작 전반에 걸친 문제를 논의·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로동신문에 대한 북한당국의 인식은 1998년 발행된 북한의 『조선대백과사전(7)』(1998, 489쪽)을 통해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이 문헌에는 먼저 로동신문의 사명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사명은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주체적 출판보도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이른바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임무는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사회·인간을 개조하는 한편, ‘전당과 전체 인민을 김정일의 두리에 철석같이 묶어 세우며 당대열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보장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로동신문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①김일성의 고전적 노작들과 교시들 ② 김정일의 역사적 문헌들과 말씀 ③그 구현기사인 당의 노선과 정책 ④당의 결정 등을 제때에 정확히 해설 침투시킴으로써 그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그들을 적극 조직한다고 인식하였다. 로동신문은 ‘수령과 조선로동당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것’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주체사상 선전강화와 김일성부자의 혁명역사와 영도업적,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에 관한 자료들을 적극 신는다. 또한 충실성 교양, 당정책교양, 혁명전

통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과 관련된 다양한 기사들을 신는다.

사상교양자적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사상혁명을 고양시키는 ‘정치사상 교양자료’로서, 1면(정치면)과 2면(정치교양면)에서 취급한다. 당력사교양부를 비롯한 당생활부, 사회주의교양부 등이 주로 맡는다.

다음으로 로동신문은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 수행에서 나서는 이론실천적 문제들과 공업, 농촌경리, 건설, 교육·문화를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되고 있는 성과들,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에 관한 문제들을 취급한다. 그리고 신문은 수령의 주체적인 당건설 사상과 방침들을 해설한 글들을 실으며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사업경험을 선전한다.

조직동원자적 기능과 문화교양자적 기능을 담당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고양시키는 ‘경제 및 문화 교양자료’로서, 3면(경제면)과 4면(문화면; 공산주의교양면)에서 취급한다. 특히, 3면은 호소성과 선동성이 강하게 부각되도록 편집하여야 한다. 공업부를 비롯한 농업부, 과학문화부 등이 주로 맡는다.

끝으로 로동신문은 조선로동당의 자주적 평화통일방침을 널리 해설·선전하고 미제를 비롯한 남한의 분열주의적 책동을 폭로하며 남한인민들을 반미자주화 투쟁으로 힘차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자료들을 신는다. 이와 함께 신문은 조선로동당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을 적극 해설·선전하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며 자주화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 글들을 신는다.

대적투쟁 및 대외선전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사상혁명을 고양시키는 ‘정세교양자료’로서, 5면(남한정세면)과 6면(국제정세면)에서 취급한다. 특히, 정세교양자료는 자본주의·제국주의 세력들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게 울려 퍼지도록 호소성과 선동성이 강하게 드러나도록 편집한다. 조국통일부와 국제부, 논설원실에서 주로 맡는다(엄기영, 1989, 106~107쪽).

3. 남한정세자료에 대한 실증적 분석

1) 연구문제, 연구방법 및 대상 시기

연구문제는 4가지 즉, ①로동신문의 남한정세자료는 누가 취재하고 어떻게 편집

되는가? ②로동신문의 남한정세자료는 시기별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③로동신문의 남한정세자료에 등장하는 인물과 단체는 무엇이며 시기별로 달라지는가? ④로동신문의 남한정세자료에 등장하는 인물과 단체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로 구성하였다.

연구방법은 ①내용분석 방법(로동신문에 기사화된 남한정세자료를 5시기로 나누어 각각 1달치를 전수조사한 후 이를 SPSS/PC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했다. 통계분석은 일차적으로 빈도와 백분율을 계산했으며 이차적으로 시기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②텍스트분석 방법(내용분석방법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인물 및 단체의 구체적 이미지는 사용된 용어를 통해 분석하였다) 등 2가지를 병행하였다.

연구대상 시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2008월 1월부터 임기 중반을 넘긴 2010년 1월까지 5단계 즉, ①제1기 : 차기 정부 준비기(2008. 1. 1~1. 30) ②제2기 : 이명박 대통령 취임초기(2008. 2. 25~3. 25) ③제3기 : 촛불집회기(2008. 7. 13~8. 11) ④제4기 : 북한 미사일 발사·핵실험기(2009. 4. 29~5. 28) ⑤제5기 : 이명박 정부 중반기(2010. 1. 1~1. 30) 등으로 임의 구분하였다.

제1기(차기 정부 준비기 / 2008. 1. 1~1. 30)는 노무현 정부의 말기로서, 이명박 차기정부의 대북 및 대외 정책의 윤곽이 정권인수위를 통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던 시기였다. 이때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국제사회의 대대적 지원, 북한 인권문제 적극 제기, 외교부의 안보정책 총괄기능 강화, 한·미동맹 및 한·미·일 3각 공조 강화 등 4가지로 요약되었다.

우선 차기 정부는 400억달러(약 38조원) 규모의 대북 국제협력기금을 마련하여 북한의 핵 포기과 개방을 이끌어내겠다는 경제중심적 정책을 구상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핵만 포기하면 대대적인 사회간접시설(SOC) 투자와 경제협력 등을 통해 북한 1인당 소득을 크게 올리겠다는 대북강온전략이었다. 이와 더불어 정부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통일부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고 외교통상부로 이관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던 시기였다.

제2기(이명박 정부 취임초기 / 2008. 2. 25~3. 25)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즉, 이른바 ‘비핵개방 3000’을 천명했던 시기였다. 이것은 2008년 2월 25일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상호주의원칙을 천명한 대북정책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과 대비되었다. 비핵개방 3000은 ‘북한이 핵을 먼

저 폐기하고 문호를 개방할 경우 남한당국은 적극적인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 국민 소득을 10년 이내에 3000달러로 끌어올려 주겠다’는 선언이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 시기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핵문제와 연관시키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공개 천명하였으며, 북한당국에게도 국군포로와 남북어부 송환문제에 대해 인도적 고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3기(촛불집회기 / 2008. 7. 13~8. 11)는 미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시기로서, 그 와중인 7월 12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초병의 총에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과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8·6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내 인권상황 개선의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져야만 한단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구절을 명시함으로써, ‘내정간섭’이라며 북한당국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였다. 이 사안은 좋지 않던 남북관계에 추가 악재로 크게 작용하였다. 한편으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공동성명이 발표되기 며칠 전에 황진하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세칭 ‘북한인권법’(북한인권증진법안)을 4년 표류 끝에 대표 발의하였다.

이 시기동안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 의장성명 번복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발단은 한국정부가 금강산 피살사건을 국제공론화하기 위해 ARF에서 거론하고 이를 의장성명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금강산 피살사건과 함께 북한대표가 제기한 10·4 남북 공동선언 지지를 의장성명에 모두 담으려하자 우리 정부가 뒤늦게 남북관계 문안들을 모두 삭제요구함으로써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사건이었다.

제4기(북한 미사일 발사·핵실험기 / 2009. 4. 29~5. 28)는 2009년 4월 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은하 2호 ; 북한은 광명성 2호로 호칭) 발사를 강행하고, 29일 북한의 외무성은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경수로 발전소 건설, 핵연료 자체 생산과 개발을 시작하겠다”고 국내외에 공표했다. 5월 25일 북한은 2차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 무수단리에서 사정거리 130km의 단거리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여 핵위기 및 미사일 위기를 초래했다. 5월 23일 노무현 전대통령이 사망하는 사건도 이때 일어났다.

이 시기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남한의 PSI(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규상) 참여 선언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남한의 대북경협사업조차 뿌리째 흔들렸던 시기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한이 개성공단 계약 무효화

선언에 이어 2차 핵실험까지 강행하자 공단 폐쇄 및 철수 등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면서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5기(이명박 정부 중반기 / 2010. 1. 1~1. 30)는 남북한 공히 신년사를 통해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대결구도를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대북정책 및 대남정책을 천명하던 시기였다. 즉, 집권 3년차를 맞은 이명박 정부와 북한의 획기적 관계개선 의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시기였다. 북한은 올해 3대 신문의 공동사설(신년사)에서 ‘인민생활의 결정적 전환’을 강조함으로써 지금까지 강조해 왔던 정치·사상을 지양하는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공동사설에서 경공업과 농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것이었다. 북한은 지난해 새로 출범한 오바마 미국정권과의 대화를 내세우면서 남측을 비난하던 ‘통미봉남정책’ 대신 남한 및 미국과의 관계를 동시에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남북 사이에 대화 기회는 늘 열려 있다’며 ‘남북간 상시적 연락기구’ 설치를 제안한 이명박 대통령도 신년 국정연설에서 “6·25 발발 60주년을 맞아 북한과 대화를 통해 북한에 묻혀 있는 국군용사를 비롯한 참전용사들의 유해 발굴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화해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한 ‘통일대계 탐색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는 한편 사실상 흡수통일 상황을 가정하는 방송프로그램도 제작함으로써 좋아질 가능성이 있던 남북간 대화분위기도 제차 가라앉게 되었다.

이와 함께 김태영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공격 징후시 ‘선제타격론’을 제기함으로써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가져왔다. 북한군부 역시 1월 28일 연평도 인근, 27일에 백령도와 대청도 부근의 NLL을 향해 해안포·자주포·방사포 등으로 집중사격을 자행함으로써 남북 갈등과 불신이 더욱 심화되던 시기였다.

2) 내용분석 항목

연구문제 1(로동신문의 남한정세자료는 어떤 면에 배치되고 누가 취재하며 어떻게 편집되는가?)을 해결하기 위해 남한정세자료의 게재면수, 지면배치, 기사형태, 기사유형, 기사제공자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2(로동신문의 남한정세자료는 시기별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 기사 분류 및 북한식 기사 분류, 기사성격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3(로동신문의 남한정세자료에 등장하는 인물/단체는 무엇이며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가?)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취급 인물/단체와 대상을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4(로동신문의 남한정세자료에 등장하는 인물/단체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를 해결하기 위해 취급 인물/단체에 대한 기사논조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 항목과 그 해당 세목은 아래와 같다.

연구항목	항목에 대한 세목
발간연도	08 ~ 10
발간월일	0101 ~ 1212
계재면수	1 ~ 6
지면배치	①첫머리(top) ②옆자리(side top) ③중간 ④하단(아랫자리)
기사형태	①전체기사 형태 ②부분기사 형태
기사유형	①사설 ②논설 ③논평·단평 ④시사해설, 정세개관 ⑤보도기사 ⑥방문기, 참관기, 기행문 ⑦령도기사·덕성기사 ⑧성명서·선언문·담화문 등 ⑨시, 수기, 수필 등
사진유무	①있음 ②없음 ③독립사진(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기사제공자	①조선중앙통신 ②본사기자 ③특파기자(특파원) ④논설원, 논평원 ⑤당·행정 관리 ⑥기타 기관의 열성필자 ⑦외국인 ⑨기사제공자 표기 없음
일반적 기사 분류	①정치 ②(주체)사상 ③군사 ④외교 ⑤통일 ⑥당국간 교류·협력 ⑦경제(물자·식량·의료·비료 등) 교류·협력 ⑧일반인(학계·종교계·사회시민 단체 등) 교류·협력 ⑨이산가족 상봉 ⑩개성 공단 ⑪개성관광 보도 ⑫금강산관광 보도 ⑬남한 인사들의 친북 홍보·동경 ⑭친북인사에 대한 탄압 ⑮파업·시위 ⑯각종 비리·재난(화재·폭발·마약) ⑰스포츠, 연예, 오락 ⑱보수인사 비판 ⑲자연재해(가뭄·홍수·황사 등)
북한식 기사 분류	①당·수령(북한식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홍보자료 ②반파쇼·민주화 투쟁자료 ③생존·권리를 위한 투쟁자료(시위, 파업 등) ④반미자주화(미군철수, 친미굴종반대) 투쟁자료 ⑤남한 당국의 반인민적 죄행 폭로자료 ⑥조국통일·남북협력을 위한 6·15 및 10·4 선언 실천촉구 투쟁자료 ⑦미제·일제 군국주의자들의 재침략 책동자료(한미 군사훈련 반대 등) ⑧일반인 교류협력 보도자료 ⑨반북·반통일 인사 비판자료 ⑩재난·비리·재해 보도자료
기사성격	①매우 긍정 ②약간 긍정 ③중립 ④약간 부정 ⑤매우 부정
주요 취급 인물/단체	①이명박 대통령·청와대·국무총리 ②남한 당국 ③정당 및 국회의원 ④국정원·외교통상부·통일부 및 해당관리 ⑤군부 및 군인 ⑥재야인사 ⑦민화협·실천연대·법민련 등 통일운동단체 ⑧한총련 등 대학운동단체 ⑨종교계 및 종교인 ⑩교육계 및 대학교수 ⑪언론계 및 언론인 ⑫이산가족 및 실향민 ⑬한민족(남북겨레) ⑭경제계 및 경제인사 ⑮진보 시민사회단체(사안별 연합단체 포함) ⑯일반농민, 노동자 ⑰남한의 일반국민(남측겨레) ⑱노동단체(전교조, 민노총) ⑲반북·반통일 인사 ⑳남한공안당국 ㉑사법당국 ㉒주한미군, 한미연합사 등
취급대상에 대한 기사논조	①매우 긍정 ②약간 긍정 ③중립 ④약간 부정 ⑤매우 부정 ⑨해당사항 없음

4. 분석 결과 및 논의

1) 남한정세자료에 대한 빈도분석

남한정세자료의 각 시기별 기사건수를 살펴보면, 제1, 2기(152건, 156건)가 월평균 5건으로 비슷하였으나 제3기에 많아지다가(179건 ; 6건), 제4기에 옛날 수준(164건 ; 5.5건)을 유지하였으며 제5기에 들어와서 크게 감소(123건 ; 4건)하였다(<표 1> 참조).

<표 1> 연구 대상 시기 (빈도)

시기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제1기 (08.01.01~08.01.30)	152	19.6	19.6
제2기 (08.02.25~08.03.25)	156	20.2	39.8
제3기 (08.07.13~08.08.11)	179	23.1	62.9
제4기 (09.04.29~09.05.28)	164	21.2	84.1
제5기 (10.01.01~10.01.30)	123	15.9	100.0
합계	774	100.0	

제3기에 기사건수가 많아진 이유는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이슈가 담긴 단편기사 형태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 소고기반대 촛불집회 관련 보도를 비롯하여 공안당국의 집회탄압기사, 평화통일 촉구 및 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기사, 독도영유권 및 위안부문제에 대한 정부대응 비판기사, 실용외교정책 비판 기사, 특히 군사관련 기사(제주해군기지 이전, 조기경보레이더 도입, 3각군사동맹, 한미군사합동훈련, 미군유지분담금, 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촉구 등) 등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제5기에 기사건수가 크게 줄어든 까닭은 공동사설에서 제기한 ‘경공업,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을 개선하자’는 기치대로 김정일은 신년초부터 공장(강동약전기구공장/홍남제련소/수산기업소/평양밀가루가공공장/룡성식료공장)을 비롯한 농목장(제534군부대산하 돼지공장) 건설현장(회천발전소) 군부대(제105땅크사단관하 구분대) 등을 현지지도 하였는데, 이를 로동신문에서 화보나 기사 형태로 1면에서 5, 6면까지 채움에 따라 남한정세자료가 전혀 실리지 않는 사례(2010. 1. 4일자; 1. 6일자; 1. 11일자; 1. 16일자; 1. 17일자; 1. 21일자; 1. 24일자)가 가끔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남한정세자료는 거의 대부분 5면(95.7%)에 집중 배치되어 있으며, 5면에 관련기사가 넘치든가 현지지도 화보 등으로 남한정세자료를 취급하지 못하면 국제정세면인 6면(3.1%)에 드물게 실리기도 한다. 나머지 면은 거의 실리지 않았다. 로동신문의 상단(Top & side top)과 하단(아랫자리)에 각각 28.9%, 29.3%를 비슷하게 배치하고 중간에 41.7%를 배치하였다. 이것은 중간 지면에 기사건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사형태는 대부분 단순보도기사로 채운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상단과 하단은 상대적으로 지면이 큰 사논설류(사설, 논설, 논평) 또는 교양적 기사(령도기사 및 덕성기사)로 채운다. 로동신문은 관례적으로 상단의 옆자리(side top)에 교양적 기사를 싣고, 상단의 첫머리(top)에 통일관련 논설이나 홈모자료(영도·덕성기사)를 싣고 하단에 논평이나 단평 등을 배치하고 있다. 한편, 남한정세자료는 주로 전체기사(98.6%) 형태를 띠고 있는데, 드물게 나타나는 부분기사 형태(1.4%)는 신년사를 비롯한 통일 및 반제 관련기사에서 종종 보인다.

남한정세자료는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주로 받아 게재하는 보도기사가 4할 이상을 차지했으며, 논평과 단평이 14.9%, 성명서·선언문·담화문·호소문 등이 14.6%, 영도 및 덕성기사가 11.9%의 순이었다. 이론적이고 원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설 및 논설(8.7%)보다 핫이슈를 다루는 논평·단평을 비롯한 시사해설·정세개관, 성명서·선언문·담화문·호소문 등의 비율(38.7%)이 4~5배가량 높았다. 기사 종류로 살펴보면 보도적 기사(55%), 사논설류(33%), 교양적 기사(12%)의 순이었다. 사진을 쓰지 않는 기사형태가 9할 가까이 되고 사진사용은 1할 정도 되었으며 기사와 관계없는 독립사진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남한정세자료의 기사제공자는 예상대로 조선중앙통신(37.2%)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본사기자(27%), 논설원 및 논평원(21.8%) 등이었고 기사제공자 표시가 없는 단순보도 역시 13%를 차지하였다(<표 2> 참조).

<표 2> 게재면~기사제공자 (빈도)

게재면	빈도/ 백분율	지면 배치	빈도/ 백분율	기사 형태	빈도/ 백분율	기사 유형	빈도/ 백분율	기사 제공자	빈도/ 백분율
1면	6 (0.8)	첫머리	123 (15.9)	전체기사 형태	763 (98.6)	사설	26 (3.4)	조선중앙 통신	288 (37.2)
2면	2 (0.3)	옆자리	101 (13.0)	부분기사 형태	11 (1.4)	논설	41 (5.3)	본사 기자	209 (27.0)
3면	0 (0.0)	중간	323 (41.7)	합계	774 (100)	논평/ 단평	115 (14.9)	특파 기자	1 (0.1)

4면	1 (0.1)	하단	227 (29.3)			시사해설 정세 개관	71 (9.2)	논설원/ 논평원	169 (21.8)
5면	741 (95.7)	합계	774 (100)	사진 게재 유무	빈도/ 백분율	보도 기사	313 (40.4)	당·행정 관리	3 (0.4)
6면	24 (3.1)			있음	79 (10.2)	덕성·영 도기사	92 (11.9)	타기관 열성필자	3 (0.4)
합계	774 (100)			없음	685 (88.5)	성명서· 담화문 등	113 (14.6)	표시 없음	101 (13.0)
				독립 사진	10 (1.3)	시·수필	3 (0.4)	합계	774 (100)
				합 계	774 (100)	합계	774 (100)		

남한정세자료를 남한식으로 기사를 분류하여 살펴보면, 통일관련 소식(21.6%)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군사소식(15.8%), 파업·시위(15.2%), 남측인사 친북홈자료(12.3%), 정치기사(11.2%)의 순이었다. 일반인 교류협력(0.3%)을 비롯한 이산가족상봉(0.1%), 개성공단소식(0.3%), 스포츠·연예오락(0.1%), 자연재해(0.4%) 등은 1% 이하로 거의 취급하지 않았다.

<표 3> 기사 분류 (빈도)

일반적 기사 분류	빈도/백분율	북한식 기사 분류	빈도/백분율
정치	87(11.2)	당·수령 홈모자료	116(15.0)
주체사상	37(4.8)	반파쇼민주화 투쟁자료	70(9.0)
군사	122(15.8)	생존권리 투쟁자료	101(13.0)
외교	48(6.2)	반미자주화 투쟁자료	83(10.7)
통일	167(21.6)	남측반인민 죄행폭로자료	51(6.6)
당국간교류협력	9(1.2)	조국통일실천 촉구자료	154(19.9)
경제교류협력	13(1.7)	미일제침략 책동자료	115(14.9)
일반인교류협력	2(0.3)	일반인교류 협력자료	2(0.3)
이산가족상봉	1(0.1)	반통일인사 비판자료	59(7.6)
개성공단	2(0.3)	재난비리 보도자료	23(3.0)
남측인사친북홈	95(12.3)	합계	774(100)
친북인사탄압	21(2.7)		
파업·시위	118(15.2)		
비리·재난	26(3.4)		
스포츠·연예·오락	1(0.1)		
보수인사비판	22(2.8)		
자연재해	3(0.4)		
합계	774(100)		

한편, 같은 내용을 북한식으로 기사를 분류하여 살펴보면, 평화통일실천 촉구자료가 2할 정도 차지하여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당·수령(사회주의제도 등 포함) 홍보자료(15%), 미일재침략 책동자료(14.9%), 생존권리 투쟁자료(13%) 등의 순이었다.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인 교류협력자료(0.3%)를 필두로 재난비리 보도자료(3%), 반인민죄행 폭로자료(6.6%), 반통일인사 비판자료(7.6%) 등의 순이었다(<표 3> 참조). 즉, 남한정세자료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통일관련 기사와 남한인사들의 당·수령 홍보기사임을 알 수 있다. 남한정세자료의 성격에 있어 부정적 묘사(54.5%)가 긍정적 묘사(16.1%)보다 3배가량 많았으며, 중립적 묘사도 3할 정도 차지하였다(<표 4> 참조).

<표 4> 기사성격 (빈도)

기사성격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매우긍정	120	15.5	15.5
약간긍정	5	.6	16.1
중립	227	29.3	45.5
약간부정	168	21.7	67.2
매우부정	254	32.8	100.0
합계	774	100.0	

남한정세자료에서 각 기사마다 첫 번째로 언급된 인물/단체 가운데 1할이 넘는 것은 통일운동단체·인물(14.1%), 이명박대통령·청와대·국무총리(13.7%), 남측겨레(10.6%) 등 3개 인물/단체이며, 다음으로 남한당국(7.6%), 진보시민단체(6.6%), 언론인(6.3%), 한민족·남북겨레(5.9%), 정당·국회의원(5.6%) 등이 5%를 넘어섰다. 그 뒤를 대학운동단체(4.9%), 군부·군인(4.4%), 주한미군(4.3%) 등이 차지했다. 1% 이하의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인물/단체는 재야인사(0.3%)를 비롯한 이산가족(0.1%), 사법당국(0.1%), 농민·노동자(0.6%), 경제계(0.6%), 종교계(0.9%) 등이었다. 인물/단체에 대한 기사성격은 부정적 묘사(37.9%)가 긍정적 묘사(20.8%)보다 1할 이상 높았으며, 중립적 묘사도 4할이 넘어섰다(<표 5>, <표 6> 참조).

하나의 취급기사에 2가지 이상의 인물/단체가 등장하는 경우가 8할이 넘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단체를 살펴보면 이명박대통령·청와대·국무총리(12.9%)를 필두로 하여 남한당국(11.1%), 남측겨레(8.5%), 남한공안당국(6.3%)의 순이었다. 2번째 나오는 인물/단체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 묘사(53.4%)가 긍정적 묘사(14.7%)보다

<표 5> 취급대상 1, 2, 3 (빈도)

취급대상	취급대상1 빈도/백분율	취급대상2 빈도/백분율	취급대상3 빈도/백분율
이명박대통령 등	106(13.7)	100(12.9)	53(6.8)
남한당국	59(7.6)	86(11.1)	34(4.4)
정당/국회의원	43(5.6)	21(2.7)	15(1.9)
대북관련 정부부서	16(2.1)	17(2.2)	2(0.3)
군부/군인	34(4.4)	27(3.5)	8(1.0)
재야인사	2(0.3)	4(0.5)	2(0.3)
통일운동단체	109(14.1)	23(3.0)	12(1.6)
대학운동단체	38(4.9)	23(3.0)	12(1.6)
종교계	7(0.9)	8(1.0)	0(0.0)
대학교수	22(2.8)	31(4.0)	15(1.9)
언론인	49(6.3)	34(4.4)	16(2.1)
이산가족	1(0.1)	1(0.1)	0(0.0)
한민족/남북겨레	46(5.9)	26(3.4)	7(0.9)
경제계 인사	5(0.6)	10(1.3)	2(0.3)
진보시민단체	51(6.6)	25(3.2)	15(1.9)
농민/노동자	5(0.6)	6(0.8)	8(1.0)
남측겨레	82(10.6)	66(8.5)	53(6.8)
노동단체	10(1.3)	4(0.5)	3(0.4)
반통일인사	30(3.9)	32(4.1)	14(1.8)
남한공안당국	23(3.0)	49(6.3)	34(4.4)
사법당국	1(0.1)	2(0.3)	0(0.0)
주한미군	33(4.3)	32(4.1)	17(2.2)
해당없음	2(0.3)	147(19.0)	452(58.4)
합계	774(100)	774(100)	774(100)

훨씬 많았다. 또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단체의 비율이 전체기사의 4할 이상이 되었다. 이명박대통령·청와대·국무총리 및 남측겨레가 각각 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남한당국과 남한공안당국이 각각 4.4%를 차지하였다. 3번째 나오는 인물/단체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 묘사(20.6%)가 긍정적 묘사(6.5%)보다 3배가량 많았다. 로동신문에서 비중있게 다루었던 인물/단체를 종합하면, 이명박대통령·청와대·국무총리가 33.4%로 가장 높으며, 남측겨레(25.9%), 남한당국(23.1%), 통일운동단체(18.7%), 언론인(12.8%), 진보시민단체(11.7%), 주한미군(10.6%), 한민족·남측겨레와 정당·국회의원(각각 10.2%)의 순이었다(<표 5>, <표 6> 참조).

<표 6> 기사논조 1, 2, 3 (빈도)

기사논조	기사논조1 빈도/백분율	기사논조2 빈도/백분율	기사논조3 빈도/백분율
매우긍정	133(17.2)	97(12.5)	43(5.6)
약간긍정	28(3.6)	17(2.2)	7(0.9)
중립	318(41.1)	175(22.6)	112(14.5)
약간부정	47(6.1)	72(9.3)	46(5.9)
매우부정	246(31.8)	266(34.4)	114(14.7)
해당없음	2(0.3)	147(19.0)	452(58.4)
합계	774(100)	774(100)	774(100)

2) 남한정세자료에 대한 교차분석

남한정세자료의 게재면수를 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제1기에서 제4기까지 5면에 95~98%를 배치시켰으나 제5기에 이르러 5면에 90.2%를 싣고 6면에 9% 가까이 관련 기사를 싣고 있다(<표 7> 참조). 이런 현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정일의 현지지도 관련소식이 화보 및 기사 형태로 1면에서 5면까지 채우게 됨에 따라 남한정세자료가 6면으로 넘어가는 경우(7일/30일)와 5면을 공산주의 교양자료로 채우고 6면을 남한·국제 정세면으로 활용하거나 기사가 넘쳐 넘어가는 경우(2010. 1. 12일자 ; 1. 13일자 ; 1. 27일자 ; 1. 29일자)가 가끔 발생했기 때문이다.

<표 7> 시기별 게재면수

게재면수	시기 구분					전체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1	2	2	1	0	1	6
	1.3%	1.3%	.6%	.0%	.8%	.8%
2	1	0	1	0	0	2
	.7%	.0%	.6%	.0%	.0%	.3%
4	0	1	0	0	0	1
	.0%	.6%	.0%	.0%	.0%	.1%
5	147	148	176	159	111	741
	96.7%	94.9%	98.3%	97.0%	90.2%	95.7%
6	2	5	1	5	11	24
	1.3%	3.2%	.6%	3.0%	8.9%	3.1%
전체	152	156	179	164	123	77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 (774, 16) = 28.55, p=.027$$

<표 8> 시기별 기사유형

기사 유형	시기 구분					전체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사설	6 3.9%	2 1.3%	8 4.5%	9 5.5%	1 .8%	26 3.4%
논설	14 9.2%	6 3.8%	3 1.7%	8 4.9%	10 8.1%	41 5.3%
논평/단평	29 19.1%	12 7.7%	22 12.3%	28 17.1%	24 19.5%	115 14.9%
시사해설/정세개관	1 .7%	16 10.3%	17 9.5%	27 16.5%	10 8.1%	71 9.2%
보도기사	83 54.6%	72 46.2%	73 40.8%	53 32.3%	32 26.0%	313 40.4%
덕성/영도기사	15 9.9%	27 17.3%	19 10.6%	16 9.8%	15 12.2%	92 11.9%
성명서/답화/선언문	3 2.0%	21 13.5%	35 19.6%	23 14.0%	31 25.2%	113 14.6%
시/수기/수필	1 .7%	0 .0%	2 1.1%	0 .0%	0 .0%	3 .4%
전체	152 100.0%	156 100.0%	179 100.0%	164 100.0%	123 100.0%	774 100.0%

$\chi^2 (774, 28) = 101.78, p=.000$

시기별 기사유형 분석에서 제1기는 사실 보도 형태인 보도기사가 과반수 이상(54.6%)을 차지한 반면, 성명서·선언문·담화문·호소문 형식의 기사(2%)는 시사해설·정세개관(0.7%)과 함께 아주 낮았다. 이 시기는 노무현 정부 말기로서,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톤이 강한 성명전을 전개하지 않은 채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시기와 관계 없이 당·수령의 영도력이나 덕성을 찬양하는 흠모 기사를 1할에서 17%까지 꾸준하게 실는 가운데 제3기와 제5기에 이르러 성명서·선언문·담화문·호소문 기사를 각각 19.6%, 25.2%나 할애하였다(<표 8> 참조). 최근으로 올수록 보도기사의 비율은 줄어들었으며,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성명서·선언문·담화문·호소문 등의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에선 사실보도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최근의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의주장적 보도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남한정세자료는 제1기부터 제4기까지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3~5할 이상 받아 작성되었으나, 제5기에 이르러 6.5%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1~2할대를 유지하던 본

사기자가 6할 이상 기사를 제공하였다. 제4기에는 논설원·논평원 제공기사(36.6%)가 가장 많았다면 제3기는 조선중앙통신(54.2%)이 기사를 가장 많이 제공하였다. 제1기는 조선중앙통신과 본사기자, 논설원·논평원들이 비교적 기사를 고르게 제공하였다(<표 9> 참조).

<표 9> 시기별 기사제공자

기사제공자	시기 구분					전체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조선중앙통신	56 36.8%	66 42.3%	97 54.2%	61 37.2%	8 6.5%	288 37.2%
본사기자	38 25.0%	34 21.8%	36 20.1%	22 13.4%	79 64.2%	209 27.0%
특파기자	0 .0%	1 .6%	0 .0%	0 .0%	0 .0%	1 .1%
논설원/논평원	31 20.4%	25 16.0%	25 14.0%	60 36.6%	28 22.8%	169 21.8%
당·행정 관리	3 2.0%	0 .0%	0 .0%	0 .0%	0 .0%	3 .4%
기타기관 열성필자	3 2.0%	0 .0%	0 .0%	0 .0%	0 .0%	3 .4%
표기없음	21 13.8%	30 19.2%	21 11.7%	21 12.8%	8 6.5%	101 13.0%
전체	152 100.0%	156 100.0%	179 100.0%	164 100.0%	123 100.0%	774 100.0%

$\chi^2 (774, 24) = 186.86, p=.000$

남한정세를 다룬 기사 종류를 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제1기에는 통일문제(40.8%)와 군사문제(17.8%)를 가장 비중있게 다루었으며 제2기에는 군사문제(39.1%)와 남측인사의 당·수령 혐모자료(15.4%)를, 제3기에는 파업·시위 소식(21.2%)과 외교문제(12.3%)를, 제4기에는 정치문제(23.2%)와 통일문제(21.3%)를, 제5기에는 통일문제(26.8%)와 파업·시위 소식(22%)을 가장 비중있게 다루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군사문제는 최근에 올수록 적게 다루었으며, 남측인사 혐모자료는 시기와 관계없이 8~15%를 꾸준하게 할애하였다. 보수인사탄압기사는 제3기와 제5기에 6% 가량 비교적 높게 다루었으며, 당국간 교류협력 및 경제교류협력 관련기사는 타 시기와는 달리 제4, 5기에서 5% 가량 비교적 높게 다루었다(<표 10> 참조).

<표 10> 시기별 일반적 기사 분류

일반적 기사 분류	시기 구분					전체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정치	5 3.3%	12 7.7%	20 11.2%	38 23.2%	12 9.8%	87 11.2%
주체사상	8 5.3%	4 2.6%	18 10.1%	7 4.3%	0 .0%	37 4.8%
군사	27 17.8%	61 39.1%	13 7.3%	15 9.1%	6 4.9%	122 15.8%
외교	5 3.3%	6 3.8%	22 12.3%	9 5.5%	6 4.9%	48 6.2%
통일	62 40.8%	16 10.3%	21 11.7%	35 21.3%	33 26.8%	167 21.6%
당국간교류협력	0 .0%	0 .0%	1 .6%	2 1.2%	6 4.9%	9 1.2%
경제교류협력	0 .0%	1 .6%	3 1.7%	9 5.5%	0 .0%	13 1.7%
일반인교류협력	1 .7%	1 .6%	0 .0%	0 .0%	0 .0%	2 .3%
이산가족상봉	0 .0%	0 .0%	1 .6%	0 .0%	0 .0%	1 .1%
개성공단	0 .0%	0 .0%	0 .0%	1 .6%	1 .8%	2 .3%
남측인사친북홈모	21 13.8%	24 15.4%	15 8.4%	19 11.6%	16 13.0%	95 12.3%
친북인사탄압	7 4.6%	8 5.1%	2 1.1%	0 .0%	4 3.3%	21 2.7%
파업시위	14 9.2%	20 12.8%	38 21.2%	19 11.6%	27 22.0%	118 15.2%
비리재난	2 1.3%	2 1.3%	12 6.7%	6 3.7%	4 3.3%	26 3.4%
스포츠연예오락	0 .0%	1 .6%	0 .0%	0 .0%	0 .0%	1 .1%
보수인사비판	0 .0%	0 .0%	11 6.1%	4 2.4%	7 5.7%	22 2.8%
자연재해	0 .0%	0 .0%	2 1.1%	0 .0%	1 .8%	3 .4%
전체	152 100.0%	156 100.0%	179 100.0%	164 100.0%	123 100.0%	774 100.0%

$\chi^2 (774, 64) = 300.546, p=.000$

남한정세자료에서 취급한 내용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제1기에는 통일문제(40.8%)

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군사문제(17.8%)와 남측인사들의 당·수령 흠모문제(13.8%)를 비중있게 취급했다. 제2기에는 군사문제(39.1%)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고 파업·시위문제(12.8%)와 통일문제(10.3%)를 비중있게 취급했다. 군사문제의 구체적 내용은 한미군사합동훈련 반대를 비롯하여 한미군사동맹 강화 비난, 주한미군 철수, 미군주둔지 재배치비용 전가 및 공중정탐문제 비판 등이었다. 제3기에는 파업·시위문제(21.2%)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외교문제(12.3%)와 통일문제(11.7%)를 비중있게 취급했고, 제4기에는 정치문제(23.2%)와 통일문제(21.3%)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친북인사 탄압문제와 남측인사흠모문제(11.6%)를 비중있게 취급했다. 제5기에는 통일문제(26.8%)와 파업·시위문제(22.0%)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남측인사흠모문제(13.0%)를 비중있게 취급했다. 통일문제는 노무현 정부때 가장 많이 취급했다가(40.8%),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 1할 정도로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배 이상 늘어났다. 군사문제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가장 높았으나(39.1%)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5% 이하로 떨어졌다. 예상과는 달리 당국간 교류협력 및 경제교류 문제는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지만 제4기와 제5기에 5% 정도 다루었으며, 이산가족상봉문제나 개성공단문제 역시 전 기간 동안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다. 파업·시위문제는 제1, 2, 4기에 1할 내외로 비슷했으나 제3, 5기에 약 2배로 증가하였다. 남측인사들의 당·수령 흠모문제는 제3기(8.4%)를 제외하고 전 기간 동안 꾸준히 1할대를 유지하고 있었다(<표 10> 참조).

한편, 남한정세자료에서 취급한 내용을 북한식 기사분류에 따라 살펴보면, 제1기에는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36.2%)가 가장 많았으며, 당·수령흠모자료(21.1%)와 반미자주화투쟁자료(17.1%)가 그 다음을 차지했고, 제2기에는 미일재침략책동자료(39.1%)가 가장 많았으며, 당·수령흠모자료(19.2%)와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10.3%)가 그 다음을 차지했고, 제3기에는 생존권리투쟁자료(34.6%)가 가장 많았으며, 당·수령흠모자료(11.7%)와 미일재침략책동자료(11.7%)가 그 다음을 차지했고, 제4기에는 반통일인사비판자료(21.3%)가 가장 많았으며,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15.9%)와 반인민죄행폭로자료(14.6%)가 그 다음을 차지했고, 제5기에는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30.1%)가 가장 많았으며, 당·수령흠모자료(13.0%)와 생존권리투쟁자료(12.2%)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는 노무현 정부때 가장 많이 취급했다가(36.2%),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 1할대로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2010년에 3할대로 복귀하였고 남측인사

들의 당·수령 혐모자료는 노무현 정부 말기와 이명박 정부 초기에 약 2할을 유지했다가 그 이후에는 반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제4기에 이 자료의 취급비율이 낮은 이유는 혐모자료 고정난에 인공위성(광명성 2호) 발사와 관련한 남한 및 국제사회의 비난을 반박하는 기사로 채웠기 때문이다. 생존권리투쟁자료는 이명박 정부 초반(제3기)에 2할대 중반을 기록했으나 전 기간 동안 비교적 1할대를 유지했으며, 미일재침략책동자료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기(39.1%)를 제외하고 전 기간 동안 비교적 1할 전후를 유지했던 반면, 반파쇼민주화투쟁자료는 전 기간 1할 전후를 유지하였다. 반통일인사비판자료와 재난비리보도자료는 노무현 정부때는 거의 없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점차 증가되는 추세(약 9%→21% ; 약 5%→8%)에 있다(<표 11> 참조).

남한정세의 기사성격을 시기별로 보면 제1기에는 중립적 묘사가 매우 높았으나(46.1%), 제2기부터 제4기까지 급격히 낮아졌으며, 제5기에 이르러 과반수이상(52.8%)으로 회복되었다. 제1기에 긍정적 묘사가 비교적 높았으나(27.6%) 제2기부터 낮아지기 시작하여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하였다. 제1기에는 다른 시기에 비해 부정적 묘사가 가장 낮았으며(26.3%), 제3기와 제4기에 각각 7~8할대를 차지하였고 제5기에 이르러 3할대 까지 떨어졌다(<표 12> 참조). 이것은 제3, 4기에 이르러 남북관계가 매우 악화된 사정과 관련되며, 제5기에 들어와서 남북간 관계개선을 위한 북한의 유화적 제스처와 연관성이 깊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11> 시기별 북한식 기사 분류

북한식 기사 분류	시기 구분					전체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당·수령혐모자료	32 21.1%	30 19.2%	21 11.7%	17 10.4%	16 13.0%	116 15.0%
반파쇼민주화투쟁자료	12 7.9%	13 8.3%	19 10.6%	13 7.9%	13 10.6%	70 9.0%
생존권리투쟁자료	11 7.2%	13 8.3%	44 24.6%	18 11.0%	15 12.2%	101 13.0%
반미자주화투쟁자료	26 17.1%	12 7.7%	19 10.6%	18 11.0%	8 6.5%	83 10.7%
남측반인민죄행폭로자료	4 2.6%	5 3.2%	10 5.6%	24 14.6%	8 6.5%	51 6.6%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	55 36.2%	16 10.3%	20 11.2%	26 15.9%	37 30.1%	154 19.9%
미일재침략책동자료	11 7.2%	61 39.1%	21 11.7%	12 7.3%	10 8.1%	115 14.9%
일반인교류협력자료	0	2	0	0	0	2

반통일인사비판자료	.0%	1.3%	.0%	.0%	.0%	.3%
	0	2	16	35	6	59
재난비리보도자료	.0%	1.3%	8.9%	21.3%	4.9%	7.6%
	1	2	9	1	10	23
	.7%	1.3%	5.0%	.6%	8.1%	3.0%
전체	152	156	179	164	123	77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 (774, 36) = 279.93, p=.000$

로동신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인물/단체는 이명박대통령·청와대·국무총리를 필두로, 남측겨레, 남한당국, 통일운동단체, 언론인, 진보시민단체, 주한미군 등의 순이었다. 기사에 처음으로 나오는 인물/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제1기에는 한민족/남북겨레(18.4%), 남측겨레(15.1%), 통일운동단체(13.2%)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나, 제2기에는 통일운동단체(19.2%), 남측겨레(10.3%), 군인/군부(9.6%) 등을 비중있게 다루었다. 제3기에는 이전까지 언급을 극도로 꺼렸던 이명박 대통령을 집중적으로(35.2%) 거론하기 시작했으며 통일운동단체 및 언론인을 각각 1할 정도 다루었으며, 제4기에도 이명박대통령(26.2%)과 통일운동단체(16.5%)를 지속적으로 다루었다. 제5기에 이르러 이명박대통령을 일체 거론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간간히 거론되던 진보시민단체(17.1%)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남한당국(13.8%), 남한겨레(11.4%), 통일운동단체(10.6%) 등을 1할 이상 다루었다. 통일운동단체는 전 시기동안 1할 이상, 남측겨레는 8~15% 정도 꾸준히 다루고 있었다. 남한당국은 제2, 3기를 제외하곤 8~14% 정도 다루었으며, 정당/국회의원과 대학운동단체는 비율은 낮지만 전 시기동안 꾸준히 다루었다(<표 13> 참조).

<표 12> 시기별 기사성격

기사성격	시기 구분					전체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매우긍정	42 27.6%	32 20.5%	14 7.8%	14 8.5%	18 14.6%	120 15.5%
약간긍정	0 .0%	1 .6%	1 .6%	3 1.8%	0 .0%	5 .6%
중립	70 46.1%	54 34.6%	36 20.1%	2 1.2%	65 52.8%	227 29.3%
약간부정	4 2.6%	18 11.5%	65 36.3%	81 49.4%	0 .0%	168 21.7%

매우부정	36	51	63	64	40	254
	23.7%	32.7%	35.2%	39.0%	32.5%	32.8%
전체	152	156	179	164	123	77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 (774, 16) = 264.06, p=.000$

인물/단체에 대한 묘사에서 제1기에는 중립적 묘사와 긍정적 묘사가 각각 4할로 부정적 묘사(17.7%)보다 2할 이상 많았으며, 제2기에는 중립적 묘사(42.3%)가 가장 많은 가운데, 부정적 묘사(33.3%)가 긍정적 묘사(23.8%)보다 1할 많았다. 제3기 역시 중립적 묘사(41.9%)가 많은 가운데, 부정적 묘사(47.5%)가 긍정적 묘사(10.2%)보다 4배나 많았으며, 제4기에는 중립적 묘사(28.7%)가 다른 시기에 비해 대폭 줄어든 가운데, 부정적 묘사(50%)가 긍정적 묘사(21.3%)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제5기에 이르러서 긍정적 묘사(52.8%)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부정적 묘사(38.2%)가 긍정적 묘사(8.9%)보다 4배 이상 많았다(<표 14> 참조). 즉, 인물/단체에 대한 부정적 묘사가 가장 높은 시기는 제4기이며, 다음으로 제3기, 제5기, 제2기, 제1기의 순이었다.

<표 13> 시기별 취급대상인물/단체

취급대상인물/단체	시기 구분					전체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이명박대통령 등	0	0	63	43	0	106
	.0%	.0%	35.2%	26.2%	.0%	13.7%
남한당국	15	7	6	14	17	59
	9.9%	4.5%	3.4%	8.5%	13.8%	7.6%
정당/국회의원	4	8	7	12	12	43
	2.6%	5.1%	3.9%	7.3%	9.8%	5.6%
대북관련정부부서	3	1	3	7	2	16
	2.0%	.6%	1.7%	4.3%	1.6%	2.1%
군부/군인	10	15	3	2	4	34
	6.6%	9.6%	1.7%	1.2%	3.3%	4.4%
재야인사	0	0	1	0	1	2
	.0%	.0%	.6%	.0%	.8%	.3%
통일운동단체	20	30	19	27	13	109
	13.2%	19.2%	10.6%	16.5%	10.6%	14.1%
대학운동단체	7	12	10	6	3	38
	4.6%	7.7%	5.6%	3.7%	2.4%	4.9%
종교계	0	0	6	0	1	7
	.0%	.0%	3.4%	.0%	.8%	.9%
대학교수	6	6	3	2	5	22
	3.9%	3.8%	1.7%	1.2%	4.1%	2.8%
언론인	16	3	19	5	6	49

	10.5%	1.9%	10.6%	3.0%	4.9%	6.3%
이산가족	1	0	0	0	0	1
	.7%	.0%	.0%	.0%	.0%	.1%
한민족/남북겨레	28	8	1	1	8	46
	18.4%	5.1%	.6%	.6%	6.5%	5.9%
경제계(인사)	0	2	1	0	2	5
	.0%	1.3%	.6%	.0%	1.6%	.6%
진보시민단체	6	11	8	5	21	51
	3.9%	7.1%	4.5%	3.0%	17.1%	6.6%
농민/노동자	2	2	0	1	0	5
	1.3%	1.3%	.0%	.6%	.0%	.6%
남측겨레	23	16	15	14	14	82
	15.1%	10.3%	8.4%	8.5%	11.4%	10.6%
노동단체	1	0	1	8	0	10
	.7%	.0%	.6%	4.9%	.0%	1.3%
반통일인사	4	11	3	8	4	30
	2.6%	7.1%	1.7%	4.9%	3.3%	3.9%
남한공안당국	5	7	6	0	5	23
	3.3%	4.5%	3.4%	.0%	4.1%	3.0%
사법당국	1	0	0	0	0	1
	.7%	.0%	.0%	.0%	.0%	.1%
주한미군	0	16	3	9	5	33
	.0%	10.3%	1.7%	5.5%	4.1%	4.3%
해당없음	0	1	1	0	0	2
	.0%	.6%	.6%	.0%	.0%	.3%
전체	152	156	179	164	123	77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774, 88) = 401.88, p=.000

<표 14> 시기별 기사논조

기사논조	시기 구분					전체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매우긍정	58	33	10	21	11	133
	38.2%	21.2%	5.6%	12.8%	8.9%	17.2%
약간긍정	2	4	8	14	0	28
	1.3%	2.6%	4.5%	8.5%	.0%	3.6%
중립	65	66	75	47	65	318
	42.8%	42.3%	41.9%	28.7%	52.8%	41.1%
약간부정	2	6	14	25	0	47
	1.3%	3.8%	7.8%	15.2%	.0%	6.1%
매우부정	25	46	71	57	47	246
	16.4%	29.5%	39.7%	34.8%	38.2%	31.8%
해당없음	0	1	1	0	0	2
	.0%	.6%	.6%	.0%	.0%	.3%
전체	152	156	179	164	123	77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774, 20) = 147.75, p=.000

지면배치에 따른 시기별 북한식 기사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5> 참조). 로동신문 첫머리(Top기사)에는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45.5%)와 당·수령흠모자료(35.8%)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였다. 전자는 제2기를 제외하곤 전 기간 동안 5~6할대를, 후자는 3~4할대를 배정하였으며, 제2기부터 제3기까지 미일재침략책동자료(24.1%;14.3%), 제4기에는 반통일인사비판자료(10.3%)를 비교적 많이 배정하였다. 측면(옆자리; Side top기사)에는 당·수령흠모자료(61.4%)를 고정적으로 배치하였으며,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와 미일재침략책동자료는 각각 1할 정도 배치하였다. 그런데, 제2기와 제4기는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의 경우 거의 배치하지 않았으며, 제4기는 반미자주화투쟁자료와 미일재침략책동자료, 반통일인사비판자료를 2할 정도 골고루 취급하였다.

지면의 중간에는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와 생존권리투쟁자료, 미일재침략책동자료 등을 17% 안팎으로 고르게 취급하였다. 제1기는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29.4%)와 반미자주화투쟁자료(27.9%), 제2기는 미일재침략책동자료(54.1%), 제3기는 생존권리투쟁자료(28.8%), 제4기는 반인민죄행폭로자료(22.2%), 제5기는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35.3%)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치하였다. 하단(아랫자리)에는 생존권리투쟁자료(19.8%)와 미일재침략책동자료(17.2%)를 가장 많이 할애했으며, 반파쇼민주화투쟁자료(14.1%), 반미자주화투쟁자료(11.9%), 반통일인사비판자료(11.9%),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11.5%) 등을 비교적 고르게 배치하였다. 제1기는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46.7%), 제2기는 미일재침략책동자료(41.7%), 제3기는 생존권리투쟁자료(31.7%), 제4기는 반통일인사비판자료(43%), 제5기는 반파쇼민주화투쟁자료(23.1%)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치하였다.

<표 15> 지면배치에 따른 시기별 북한식 기사 분류

지면 배치	북한식 기사 분류	시기 구분					전체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첫 머리	당·수령흠모자료	8	14	7	9	6	44
		30.8%	48.3%	33.3%	31.0%	33.3%	35.8%
	반미자주화투쟁자료	1	1	1	1	1	5
		3.8%	3.4%	4.8%	3.4%	5.6%	4.1%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	16	7	10	14	9	56
	61.5%	24.1%	47.6%	48.3%	50.0%	45.5%	

옆 자리	미일재침략책동자료	1	7	3	2	1	14
		3.8%	24.1%	14.3%	6.9%	5.6%	11.4%
	반통일인사비판자료	0	0	0	3	0	3
		.0%	.0%	.0%	10.3%	.0%	2.4%
	재난비리보도자료	0	0	0	0	1	1
		.0%	.0%	.0%	.0%	5.6%	.8%
	전체	26	29	21	29	18	12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당·수령홈모자료	19	16	12	7	8	62
		67.9%	88.9%	80.0%	28.0%	53.3%	61.4%
반파쇼민주화투쟁자료	1	0	0	0	0	1	
	3.6%	.0%	.0%	.0%	.0%	1.0%	
생존권리투쟁자료	0	0	1	0	0	1	
	.0%	.0%	6.7%	.0%	.0%	1.0%	
반미자주화투쟁자료	1	1	0	5	0	7	
	3.6%	5.6%	.0%	20.0%	.0%	6.9%	
남측반인민죄행폭로자료	0	0	0	2	0	2	
	.0%	.0%	.0%	8.0%	.0%	2.0%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	5	0	2	1	4	12	
	17.9%	.0%	13.3%	4.0%	26.7%	11.9%	
미일재침략책동자료	2	1	0	5	2	10	
	7.1%	5.6%	.0%	20.0%	13.3%	9.9%	
반통일인사비판자료	0	0	0	5	1	6	
	.0%	.0%	.0%	20.0%	6.7%	5.9%	
전체	28	18	15	25	15	10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간	당·수령홈모자료	4	0	2	1	2	9
	5.9%	.0%	2.5%	1.6%	3.9%	2.8%	
반파쇼민주화투쟁자료	8	3	12	10	4	37	
	11.8%	4.9%	15.0%	15.9%	7.8%	11.5%	
생존권리투쟁자료	7	8	23	10	7	55	
	10.3%	13.1%	28.8%	15.9%	13.7%	17.0%	
반미자주화투쟁자료	19	6	10	5	4	44	
	27.9%	9.8%	12.5%	7.9%	7.8%	13.6%	
남측반인민죄행폭로자료	4	3	8	14	5	34	
	5.9%	4.9%	10.0%	22.2%	9.8%	10.5%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	20	7	5	10	18	60	
	29.4%	11.5%	6.3%	15.9%	35.3%	18.6%	
미일재침략책동자료	6	33	6	1	6	52	
	8.8%	54.1%	7.5%	1.6%	11.8%	16.1%	
반통일인사비판자료	0	1	8	11	3	23	

		.0%	1.6%	10.0%	17.5%	5.9%	7.1%
	재난비리보도자료	0	0	6	1	2	9
		.0%	.0%	7.5%	1.6%	3.9%	2.8%
	전체	68	61	80	63	51	32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단	당·수령흡모자료	1	0	0	0	0	1
		3.3%	.0%	.0%	.0%	.0%	.4%
	반과소민주화투쟁자료	3	10	7	3	9	32
		10.0%	20.8%	11.1%	6.4%	23.1%	14.1%
	생존권리투쟁자료	4	5	20	8	8	45
		13.3%	10.4%	31.7%	17.0%	20.5%	19.8%
	반미자주화투쟁자료	5	4	8	7	3	27
		16.7%	8.3%	12.7%	14.9%	7.7%	11.9%
	남측반인민죄행폭로자료	0	2	2	8	3	15
		.0%	4.2%	3.2%	17.0%	7.7%	6.6%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	14	2	3	1	6	26
		46.7%	4.2%	4.8%	2.1%	15.4%	11.5%
	미일재침략책동자료	2	20	12	4	1	39
		6.7%	41.7%	19.0%	8.5%	2.6%	17.2%
	일반인교류협력자료	0	2	0	0	0	2
		.0%	4.2%	.0%	.0%	.0%	.9%
	반통일인사비판자료	0	1	8	16	2	27
		.0%	2.1%	12.7%	34.0%	5.1%	11.9%
	재난비리보도자료	1	2	3	0	7	13
		3.3%	4.2%	4.8%	.0%	17.9%	5.7%
	전체	30	48	63	47	39	22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단: $\chi^2(123, 20) = 28.61, p=.096$; 측면: $\chi^2(101, 28) = 54.95, p=.002$
 중간: $\chi^2(323, 32) = 162.10, p=.000$; 하단: $\chi^2(227, 36) = 150.29, p=.000$

끝으로 지면배치에 따른 시기별 기사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6> 참조). 로동신문 첫머리(Top기사)에는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와 당·수령흡모자료가 8할 이상 차지하는 까닭에 중립적(30.9%) 내지 긍정적 묘사(34.9%)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부정적 묘사(34.2%)와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였다. 제1, 2, 5기는 긍정적 묘사가 훨씬 많았던 반면 제3, 4기는 부정적 묘사가 훨씬 많았다. 측면(옆자리; Side top기사)에는 당·수령흡모자료(61.4%)를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관례 때문에 긍정적 묘사가 6할이나 되었다. 다만 제4기는 예외적으로 긍정적 묘사(28%)보다 부정적 묘사(72%)가 훨씬 많았으며, 제2기는 제1기보다 긍정적 묘사가 2할이나 더 높았다.

<표 16> 지면배치에 따른 시기별 기사성격

지면 배치	기사성격	시기구분					전체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첫 머리	매우긍정	9	14	4	7	6	40	
		34.6%	48.3%	19.0%	24.1%	33.3%	32.5%	
	약간긍정	0	0	1	2	0	3	
		.0%	.0%	4.8%	6.9%	.0%	2.4%	
	중립	14	12	3	0	9	38	
		53.8%	41.4%	14.3%	.0%	50.0%	30.9%	
	약간부정	0	0	11	16	0	27	
		.0%	.0%	52.4%	55.2%	.0%	22.0%	
	매우부정	3	3	2	4	3	15	
		11.5%	10.3%	9.5%	13.8%	16.7%	12.2%	
	전체	26	29	21	29	18	12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옆 자리	매우긍정	19	16	10	7	9	61	
		67.9%	88.9%	66.7%	28.0%	60.0%	60.4%	
	중립	4	0	3	0	3	10	
		14.3%	.0%	20.0%	.0%	20.0%	9.9%	
	약간부정	1	0	1	7	0	9	
		3.6%	.0%	6.7%	28.0%	.0%	8.9%	
	매우부정	4	2	1	11	3	21	
		14.3%	11.1%	6.7%	44.0%	20.0%	20.8%	
		전체	28	18	15	25	15	10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간	매우긍정	10	2	0	0	3	15	
		14.7%	3.3%	.0%	.0%	5.9%	4.6%	
	약간긍정	0	1	0	1	0	2	
		.0%	1.6%	.0%	1.6%	.0%	.6%	
	중립	35	26	18	2	31	112	
		51.5%	42.6%	22.5%	3.2%	60.8%	34.7%	
	약간부정	2	7	30	32	0	71	
		2.9%	11.5%	37.5%	50.8%	.0%	22.0%	
	매우부정	21	25	32	28	17	123	
		30.9%	41.0%	40.0%	44.4%	33.3%	38.1%	
	전체	68	61	80	63	51	32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단	매우긍정	4	0	0	0	0	4	
		13.3%	.0%	.0%	.0%	.0%	1.8%	
	중립	17	16	12	0	22	67	

		56.7%	33.3%	19.0%	.0%	56.4%	29.5%
	약간부정	1	11	23	26	0	61
		3.3%	22.9%	36.5%	55.3%	.0%	26.9%
	매우부정	8	21	28	21	17	95
		26.7%	43.8%	44.4%	44.7%	43.6%	41.9%
	전체	30	48	63	47	39	22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단: $\chi^2(123, 16) = 67.11, p=.000$; 측면: $\chi^2(101, 12) = 38.46, p=.000$
 중간: $\chi^2(323, 16) = 123.36, p=.000$; 하단: $\chi^2(227, 12) = 94.95, p=.000$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를 비롯한 생존권리투쟁자료, 미일재침략책동자료 등을 다양하고 고르게 취급하였던 중간지면에는 중립적(34.7%)이거나 부정적 묘사(60.1%)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긍정적 묘사가 제1기의 14.7%를 제외하고 여타의 기간에서 6%를 넘지 못했다. 하단(아랫자리)에는 생존권리투쟁자료와 미일재침략책동자료를 37% 할애하였는데, 중간지면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묘사(68.8%)가 긍정적 묘사(1.8%)보다 훨씬 많았다. 그나마 제1기의 긍정적 묘사가 13.3%였으나 여타의 기간은 2% 미만이었다. 로동신문은 긍정적 묘사의 정도가 옆머리(측면), 앞머리, 중간, 하단의 순으로 높았다. 즉,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부정적 묘사가 점차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긍정적 묘사가 압도적(94%)인 기사형태는 당연히 당·수령홈모자료였으며, 그 다음이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7.1%)였다. 그러나,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는 긍정적 묘사보다 중립적 묘사가 과반수 이상(59.9%)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생존권리투쟁자료(49.5%)였다. 부정적 묘사가 가장 심한 기사형태는 반통일인사비판자료(93.2%)와 미일재침략책동자료(80.9%)였으며, 재난·비리보도자료는 부정적 묘사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취급건수가 거의 없는 편이었다(<표 17> 참조).

<표 17> 북한식 기사 분류에 따른 기사성격

북한식 기사 분류	기사 성격					전체
	매우 긍정	약간 긍정	중립	약간 부정	매우 부정	
당·수령홈모자료	105	4	3	4	0	116
	87.5%	80.0%	1.3%	2.4%	.0%	15.0%
반파쇼민주화투쟁자료	2	0	26	15	27	70
	1.7%	.0%	11.5%	8.9%	10.6%	9.0%
생존권리투쟁자료	2	0	50	24	25	101

	1.7%	.0%	22.0%	14.3%	9.8%	13.0%
반미자주화투쟁자료	1	0	20	22	40	83
	.8%	.0%	8.8%	13.1%	15.7%	10.7%
남측반인민죄행폭로자료	0	0	4	11	36	51
	.0%	.0%	1.8%	6.5%	14.2%	6.6%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	10	1	90	35	18	154
	8.3%	20.0%	39.6%	20.8%	7.1%	19.9%
미일제침략책동자료	0	0	22	29	64	115
	.0%	.0%	9.7%	17.3%	25.2%	14.9%
일반인교류협력자료	0	0	1	1	0	2
	.0%	.0%	.4%	.6%	.0%	.3%
반통일인사비판자료	0	0	4	21	34	59
	.0%	.0%	1.8%	12.5%	13.4%	7.6%
재난·비리보도자료	0	0	7	6	10	23
	.0%	.0%	3.1%	3.6%	3.9%	3.0%
전체	120	5	227	168	254	77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단: $\chi^2(774, 36) = 773.43$ $p=.000$

3) 질적 분석

선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선전수법 역시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1927년에 미국에서 설립된 선전분석연구소(The Institution for Propaganda)에서는 다양한 선전기법을 7가지 형태로 유형화하는데 성공했다. 그것은 즉, ①Name Calling(매도하기; 증오심과 공격성을 유발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악평어(bad label)를 붙여 남의 약점을 집약적으로 들추어내는 선전기법) ②Glittering Generality(추켜세우기; 호평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치켜세우는 선전기법) ③Transfer(전이하기; 기존의 권위·명성·위광을 이용, 감정이입을 통해 연상시키는 선전기법) ④Testimonial(증언하기; 존경을 받거나 반대로 욕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견해나 상품에 대해 증언케 하는 선전기법) ⑤Plain Folks(평민처럼 보이기; 서민적인 분위기를 풍김으로써 선전객체에게 친근감을 주어 설득하는 선전기법) ⑥Card Stacking(유리한 것만 선택하기; 여러 가지 사실 가운데 유리한 것만 골라 선택하고 나머지 주장이나 증거는 무시하는 선전기법) ⑦Bandwagon(부화뇌동하기; 모두가 한다든지, 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대중의 동조를 유도하는 선전기법) 등이다.

북한은 7가지 선전기법 가운데 ‘추켜세우기’와 ‘매도하기’ 기법을 이용하여 선전 선동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자주 구사해 왔다. ‘추켜세우기’의 전형적 기사형

태는 당·수령흠모자료이며, ‘매도하기’의 전형적 기사형태는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를 필두로 미일채침략책동자료, 민생권리투쟁자료, 반미자주화투쟁자료 등이다.

당·수령흠모자료는 남한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김일성부자의 영도력과 덕성 및 북한의 우월성(이른바 사회주의제도, 구체적으로 통일정책, 교육제도, 의료제도, 토지제도, 과학기술 등)에 대한 흠모자료이다. 특히, 로동신문은 김정일을 “민족의 위대한 태양, 사상이론의 영재, 통일의 태양, 민족의 영도자, 절세의 애국자, 절세의 위인, 세계적인 정치지도자”로 규정하면서 남측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마음속 깊이 흠모하고 있다고 날조하였다. 흠모자료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교수(퇴직교수 포함)와 지식인(연구원, 문인 포함), 통일운동인사, 일반주민 등이 상위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재야인사, 노동자(노동운동가 포함)/농민, 언론인 등이 중간그룹을 형성하였고, 대학생 회사원 실향민 비전향장기수 기업가 등이 하위그룹을 형성하여 다양한 직업군들이 하나같이 김정일을 존경해마지 않는다는 것이다.

로동신문은 당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언론매체로서, 자본주의 신문과는 다르게 ‘매도하기’ 선전기법을 즐겨 사용해 왔다. 남한정세자료 속에 나타나 있는 약평어를 시기별로 정리해 보면 <표 18>와 같다.

<표 18> 북한식 기사 분류에 따른 시기별 약평어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반미자주화투쟁자료	친미사대(보수)세력, 친미굴종세력, 사대매국세력(매국노), 남조선강점미군	친미군부세력, 친미사대(보수)세력(매국노, 분자), 남조선강점미군	친미사대매국세력(군부), 특등친미분자, 친미주구, 친미보수정권, 미군부호전세력	특등호전광, 보수패당, 미제호전광	(남조선)보수패당, 친미사대분자, 사대매국세력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	남조선(내외)호전세력(분자), (내외)분열주의세력, 파썬독재세력, 반통일대결광신자, 반통일파썬광	남조선미국군부호전세력, 친미반통일세력, 내외반통일(호전)세력, 반통일분렬세력, 남조선파썬광, 남조선(군)호전광(호전세력), 내외반통(호전광), 공안탄압	이명박역도(패당, 일당, 반역도당, 매국역적), 괴뢰역도, 남조선괴뢰, 괴뢰호전광, 반역도당, 괴뢰국방장관, 괴뢰합참의장, 괴뢰군부	이명박역도(패당, 일당, 역적도당, 역적패당, 보수패당), 이명박괴뢰정권, 남조선괴뢰(호전광), 괴뢰군(부)호전광, 남조선괴뢰군당국자, 반역통치배, 반역도당, 역적패당, 대결광신자집단, 괴뢰국무총리, 괴뢰국방부, 남조선보수패당	내외분열주의세력, 반통일세력, 남조선(군부)호전광, 남조선호전세력, 괴뢰당국, 괴뢰호전광, 괴뢰국방부장관, 대결광신자
미일채침략책동자료	미제침략군놈, 미제(침략군)호전광, 미국호전계층, 제국주의침략세력, 일본반동	미제침략군, 미제(침략군)호전광, 독도강탈, 제국주의반동세력, 일본반동	전쟁광신자	미제침략군, 전쟁광신자	

반통일인사비판자료	극우보수세력	반통일적 망동		극우보수분자,보수미치광이	
민생권리투쟁자료	파쇼폭압,반인륜적 망동	파쇼적폭거, 파쇼적망동	괴뢰경찰,괴뢰검찰,파쇼깡패,리명박파쇼정권,괴뢰노동부장관,괴뢰전투경찰	괴뢰공안당국,괴뢰경찰당국,파쇼(통치,독재,경찰,당국,도당,탄압,폭군,깡패,악당),파쇼광,폭력경찰	괴뢰검찰,파쇼당국(탄압),파쇼광

‘악평어’(bad label)를 가장 다양한 형태로 붙이고 있는 기사형태는 ‘조국통일실천 촉구자료’이다. 조국통일문제는 로동신문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문제로서 남한의 집권세력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악평어를 양산해 왔다. 가장 주요한 단어(key word)는 ‘호전’ ‘분열’ ‘반통일’ ‘친미’ ‘파쇼’ ‘괴뢰’ ‘반역’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남조선호전세력, 남조선 호전광, 내외반동 호전광, 괴뢰호전광, 분열주의세력, 반통일 분열세력, 반통일 대결광신자, 반통일 파쇼광, 친미반통일세력, 파쇼독재세력, 남조선 파쇼광, 괴뢰역도, 남조선괴뢰, 괴뢰당국, 반역통치배, 반역도당 등이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악평어를 붙여 사용하기도 했다. 예컨대,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 뒤에 역도, 패당, 일당, 역적도당, 역적패당, 보수패당, 괴뢰정권, 매국역적 등을 붙이는 것이다.

두 번째로 다양한 악평어를 사용하는 것은 반미자주화투쟁자료이다. 악평어의 주요 단어(key word)는 ‘친미·사대·매국’ ‘강점’ ‘미제’ ‘호전’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친미사대세력, 친미굴종세력, 사대매국세력, 친미군부세력, 친미사대 매국노, 특등친미분자, 친미주구, 친미보수정권, 남조선강점미군, 미제침략군, 미제호전광, 미군부호전세력, 특등호전광 등이었다. 이러한 악평어는 모든 시기에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반미’라는 관점에서 사용된 이러한 악평어는 미일재침략책동자료에도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주요 단어로 ‘미제’ ‘침략군’ ‘호전’ ‘제국주의’ 등을 사용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로 미제침략군, 미제호전광, 미국호전계층, 전쟁광신자, 제국주의반동세력, 제국주의침략세력, 일본반동 등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악평어는 제1, 2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다가 제3기부터 제5기까지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끝으로 민생권리투쟁자료에도 다양한 악평어를 사용하고 있다. 주로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이나 수사하는 검찰 등 공안당국에 대한 악평어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악평어의 주요 단어(key word)는 ‘파쇼’ ‘괴뢰’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파쇼를 접두어로 하는 정권, 통치, 독재, 경찰, 당국, 도당, 탄압, 폭군, 깡패, 악당, 폭압, 폭거 등이 있으며, 괴뢰를 접두어로 하는 경찰, 검찰, 노동부장관, 전투경찰, 공안당국, 경

찰당국 등이 있다. 이러한 악평어는 제3, 4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다가 제5기에 이르러 매우 자제하고 있었다.

한편, 로동신문은 제1기부터 제5기까지 남한에서 이루어지는 보안법 철폐운동, 공안당국의 무력시위진압, 주한미군의 문제 등을 꾸준히 보도해 왔다. 보안법을 ‘반민족·반통일·반인권·파쇼악법’으로 규정하고, 공안당국의 시위진압을 ‘반인륜적 망동’으로서 ‘파쇼적 탄압(폭거)’ ‘반민중적·반통일적 신호탄’으로 규정하였으며, 주한미군을 ‘남조선강점미군’으로 표현하면서, ‘전쟁집단, 살인집단, 평화파괴집단’으로 매도하였다. 또한, <민족일보사건>의 담당관사였던 이회창 총재를 ‘역도, 사법살인자, 살인귀, 사대매국노, 친일친미주구, 극악한 대결광신자, 외세의 전쟁머슴군’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였다.

제2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1달 동안 취임소식이나 이명박 대통령 이름을 한번도 거론하지 않았던 로동신문이 제3기에 이르러 드디어 이명박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 최악의 대통령, 전과자, 친미사대매국세력, 매국역적, 친미주구, 호전세력, 파렴치한 사기군, 정치협잡군’ 등으로 다양한 악평어를 사용하면서 매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를 ‘매국반역·사대매국 정치’의 전형으로 인식하면서, ‘독재정권, 파쇼정권, 호전정권, 친미보수정권’으로 규정하였다.

제3기의 로동신문은 2008년 5월부터 들불처럼 일어난 <촛불시위> 보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핵·개방 3000>이 6월 14일 공식 발표되자 반통일적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7월 12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 군사보호구역에 잘못 들어가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금강산 관광중단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초기에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대통령 이름까지 적시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남북관계가 여러모로 악화되자 계속해서 6·15/10·4 선언실천을 주장하고 당·수령흐모자료를 5면 상단에 게재하는 관행을 지속하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에서 촛불집회 보도, 정부의 독도정책 비판까지 의제를 확대해 나갔다.

로동신문은 제4기부터 김정일의 현지지도 장면을 크게 취급해 왔다. 현지지도에서 특히, 사회주의 경제건설현장(공장 및 발전소 건설현장) 및 사상고취 현장(만경대 고향집 및 백두산 밀영 등), 농업생산 현장 등을 크게 취급하였다. 사진은 질적

으로 고급화되었고 양적으로도 많아졌다. 이 시기에 노무현 전대통령 사망소식을 단신으로 보도하였으며, 1면에 ‘조선’을 싣기도 했다. 제3기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을 ‘미친’이라는 형용사로 폄하하는 한편 이명박 정부를 ‘괴뢰정권, 독재정권, 반역정권, 학살정권’으로 규정하였다. 제5기에 이르러서는 국방부·통일부·국정원·외통부 장관을 <을사 5적> 같은 상징어처럼 <경인 4적>으로 규정하기도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명박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다른 시기에 비해 비난을 크게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로동신문은 남한의 많은 언론매체들을 다양하게 인용하고 있다. 제1기에는 인터넷매체 <자주민보>, <구국전선>, <민중의 소리>, <참말로>, <핼>, <배움의 길> 등을 비롯하여 출판매체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월간 <말>, <한겨레21> 등과 방송매체인 MBC, CBS 등을 다양하게 인용하였다. 이에 비해 제2기는 인용한 언론매체가 크게 줄어들었다. 인용한 매체는 인터넷매체 <자주민보>, <통일뉴스>, <민중의 소리> 등을 비롯하여 신문매체인 <경향신문>, <조선일보> 등과 방송매체인 MBC, KBS, CBS 등이었으며, <조선일보>의 경우는 반통일매체라고 혹독하게 비판하였다.

제3기에는 인용 매체수가 더 줄어들었다. 인터넷매체 <자주민보>를 비롯해 신문매체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등과 방송매체 KBS, MBC, CBS, 통신매체인 <연합뉴스> 등을 인용하였다. <조선일보>의 경우 반동언론으로 규정, 비판하는 한편 MBC의 경우 한국정부의 방송장악기도를 비판하였다. 반면, 제4기에 와서는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 <통일뉴스> 등을 필두로 신문매체인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과 방송매체인 MBC, CBS, KBS, 연합뉴스TV, 통신매체인 <연합뉴스>를 다양하게 인용하였다. 제5기에는 매체의 다양성이 크게 줄어 인터넷매체인 <민중의 소리>, <자주민보>를 비롯해, 출판매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등과 방송매체인 MBC, CBS, KBS, 통신매체인 <연합뉴스> 등을 인용하였다. 전 기간 동안 로동신문에서 즐겨 인용하는 언론매체는 반정부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자주민보>, MBC, CBS 등이었다.

5. 요약 및 결론

이 논문은 4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로동신문의 남한정세자료는 어떤 면에 배치되고 누가 취재하며 어떻게 편집되는가?)의 결과를 요약하면 남한정세자료는 거의 대부분 5면(95.7%)에 집중 배치되며 6면(3.1%)에도 드물게 실렸다. 로동신문의 상단과 하단에 각각 3할이 배치되고 지면중간에 4할을 배치하였다. 조선중앙통신에서 4할 이상 기사를 제공받았던 남한정세자료는 최근으로 올수록 보도 기사가 줄고 성명서·담화문·호소문 등의 의견기사가 늘어났다.

연구문제 2(로동신문의 남한정세자료는 시기별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의 결과를 요약하면 남한정세자료는 통일문제를 가장 중시하며 다음으로 군사소식, 파업·시위, 친북혐모 등의 순이었다. 제1기에는 통일문제와 군사문제, 제2기에는 군사문제와 친북혐모, 제3기에는 파업·시위소식과 외교문제, 제4기에는 정치문제와 통일문제, 제5기에는 통일문제와 파업·시위소식을 비중있게 다루었다. 북한식 기사 분류 차원에서 살펴보면 제1기에는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와 당·수령혐모자료, 제2기에는 미일재침략책동자료와 당·수령혐모자료, 제3기에는 생존권리투쟁자료와 당·수령혐모자료, 제4기에는 반통일인사비판자료와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 제5기에는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와 당·수령혐모자료를 비중있게 취급하였다. 기사성격의 경우 긍정감화교양을 강조하는 북한이지만 부정적 묘사(54.5%)가 긍정적 묘사보다 3배가량 많았다.

연구문제 3(로동신문의 남한정세자료에 등장하는 인물/단체는 무엇이며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가?)의 결과를 요약하면 로동신문에서 비중있게 취급한 인물/단체는 이명박대통령·청와대·국무총리 등을 필두로 남측겨레, 남한당국, 통일운동단체, 언론인, 진보시민단체 등의 순이었다. 제1기에는 한민족/남북겨레, 남측겨레, 통일운동단체 등을, 제2기에는 통일운동단체, 남측겨레, 군인/군부를, 제3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청와대, 통일운동단체를, 제4기에도 이명박대통령 등과 통일운동단체를, 제5기에는 이명박대통령을 일체 거론하지 않은 채, 특별히 거론되지 않던 진보 시민단체와 남한당국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연구문제 4(로동신문의 남한정세자료에 등장하는 인물/단체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의 결과를 요약하면 취급대상 인물/단체에 대한 묘사에서 제1기에는 중립적 묘사와 긍정적 묘사가 각각 4할로 부정적 묘사보다 2할 이상 많으며, 제2기에는

중립적 묘사가 가장 많은 가운데, 부정적 묘사가 긍정적 묘사보다 1할 많았다. 제3기 역시 중립적 묘사가 높은 가운데, 부정적 묘사가 긍정묘사보다 무려 4배나 많았다. 제4기에는 중립적 묘사가 다른 시기에 비해 대폭 줄어든 가운데 부정적 묘사가 긍정묘사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제5기에 이르러 중립적 묘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부정적 묘사가 긍정적 묘사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이 논문은 내용분석방법을 통한 양적분석과 더불어 남한정세자료에 자주 언급된 악평어(bad label)를 중심으로 텍스트분석을 시도하였다. ‘악평어’(bad label)를 다양한 형태로 붙이고 있는 기사형태는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였다. 조국통일문제는 로동신문에서 가장 핵심적·중점적으로 취급하는 문제로서 남한의 집권세력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악평어를 양산해 왔다. 가장 주요한 단어(key word)는 ‘호전’ ‘분열’ ‘반통일’ ‘친미’ ‘파쑸’ ‘괴뢰’ ‘반역’ 등이다. 이와 함께 현직 대통령의 실명에다가 다양한 악평어(예컨대, 역도, 패당, 일당, 역적도당, 역적패당, 보수패당, 괴뢰정권, 매국역적 등)를 붙여 사용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다양한 악평어를 사용하는 것은 반미자주화투쟁자료였다. 악평어의 주요 단어(key word)는 ‘친미·사대·매국’ ‘강점’ ‘미제’ ‘호전’ 등이다. ‘반미’라는 관점에서 미일재침략책동자료에도 유사한 악평어를 사용하였는데, 주요 단어로는 ‘미제’ ‘침략군’ ‘호전’ ‘제국주의’ 등이 있다. 민생권리투쟁자료에는 주로 시위진압경찰이나 수사검찰 등 공안당국에 대한 비판적 용어가 즐겨 사용되고 있었다. 악평어의 주요 단어(key word)는 ‘파쑸’ ‘괴뢰’ 등이었는데, 제3, 4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다가 제5기에 이르러 크게 자제하는 분위기다.

북한당국은 2000월 6월 개최된 남북한 정상회담 직후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로동신문을 비롯한 평양방송, DMZ확성기방송(2004년 6월 남북한 동시 철거) 등에서 실시하였던 남한에 대한 비방·모략 선전선동활동을 자제해 왔었다. 남한을 자극하는 공격용어(예컨대, 괴뢰통치배, 미제앞잡이, 파쇼군사독재 등) 대신 대통령, 국군 등 남한의 공식적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실보도 위주로 전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작업의 로동신문 남한정세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전상태로 되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남한언론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나 사건을 뉴스중심으로 보도하는 객관적·사실보도적 저널리즘(보도성 중시)을 지향한다면, 북한언론은 조선로동당의 노선이나 정책을 의견중심으로 논평·해설하는 설득적·주의주장적 저널리즘(정론성 중시)을 지향한다. 그리고, 북한은 그들의 언론을 한마디로 ‘예리하고 전투적인 사상적 무기

'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 생각하는 객관성·중립성·초계급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 남한언론이 기사의 질을 결정하는 속성으로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북한언론은 정론성, 혁명성, 통속성(대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남한에서 중시하는 정확성과 객관성이 특정한 당이나 계급에 기울어지지 않는 불편부당성(무당성, 초당성, 초계급성)을 기본으로 한다면, 정론성과 혁명성은 노동자·농민 계급의 편에 서서 당과 계급적 입장을 예리하게 천명하는 당성(계급성)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남한언론인이 객관적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정보전달자'나 정부기관의 권력 남용과 비리를 감시하는 '정부감시자'(파수견), 정부시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자'라고 한다면, 북한언론인은 사상전선의 전초선에 서있는 '당의 붉은 문필전사'나 당정책의 적극적인 '옹호자·선전자·관철자'(보호견)이며,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이론적으로 옹호보위하는 '친위대·근위대'이다.

이런 점 때문에 북한언론은 남한언론이 즐겨 취급하는 사건·사고 기사를 한 줄도 신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미지를 제고하는 '기업광고'나 소비자에게 구매심을 자극하는 '상품광고'를 취급하지 않는다. 북한당국은 긍정적 모범을 통한 감화 교양이 북한인민들의 군중교양방법에 더 부합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김정일이 주창했다는 이른바 '주체적 출판보도사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로동신문을 비롯한 북한언론의 남한에 대한 논조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영주(2003. 12). 북한기자론 : 그 종류, 성격과 품성, 기자교육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제8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김영주(2008. 12). 북한신문 편집에 관한 연구. *동북아연구*, 제13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김영주(1998). *현대북한 언론연구*. 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 김영주·이범수편(1991).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 서울: 나남출판.
- 김영주·이범수편(1994). *김정일시대의 언론이론과 정책*.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영주·이범수편(1999). *현대북한 언론의 이해*. 서울: 한올아카데미.
- 레닌(1988). 김민호(역). *무엇을 할 것인가?-우리 운동의 긴급한 문제*. 서울: 백두.
- 리응필(1979). *신문기사론*.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엄기영(1989). *신문학개론*.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조형창·리준하(1982). *신문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조형창 외(1984). *기사집필수업(1)*.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_____ (1974). *김정일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2~1984). *백과전서(1)~(6)*.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_____ (1995~2001). *조선대백과사전(1)~(32)*.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 _____ (1985). *출판보도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로동신문』 '65. 11. 2 ; '71. 11. 1 ; '74. 7. 16 ; '76. 12. 1 ; '80. 11. 1 ; '85. 11. 1
 ; '86. 12. 1 ; '90. 11. 1 ; '93. 11. 20 ; '95. 11. 1 ; 2000. 12. 1.
- 『로동신문』 '08. 1. 1~1. 30 ; '08. 2. 25~3. 25 ; '08. 7. 13~8. 11 ; '09. 4. 29~5.
 28 ; '10. 1. 1~1. 30.